

LINC 3.0 대학별 우수사례 공유

전북대 등 전국 13개 대학
LINC 3.0 정기총회·워크숍
탄소배출 적은 소고기 생산
기술 개발 등 성과 사례 발표



전북대학교를 비롯해 기술혁신선도형 LINC3.0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13개 대학이 26~27일 이틀 간 전주 라한호텔에서 대학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갖고 있다.

전북대학교를 비롯해 기술혁신선도형 LINC3.0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13개 대학이 26~27일 이틀 간 전주 라한호텔에서 대학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갖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을 주관한 전북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 축산농가의 협력으로 탄소배출이 적은 소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사업화 한 성과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전남대는 바이오헬스ICC 교원 창업을 통해 활기세포를 활용한 첨단 재생의료치료제를 개발하는 사례와 차세대 에너지 ICC학생창업 우수 사례 발표를 통해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수도권에서는 고려대가 AI 기반 신약합력 플랫폼(KURN) 구축 개선 사례를, 성균관대가 기술사업화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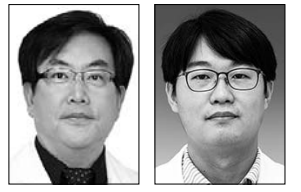
원체계를 통한 창업과 상생형 산학협력 모델 구축 사례를 한양대가 산학연 연계 교수법 구축 사례를 각각 발표해 큰 관심을 받았다. 한편 각 대학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내용 공유를 통해 LINC3.0 사업의

공유와 협업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가고,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 특성에 맞는 산학연협력 기술 혁신을 이끌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철규 LINC 3.0 사업단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대학 간 경쟁이 아니라 진정한 공유·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대학이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해 사업 수행 대학들이 상생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코·목에 빛 쏘아 바이러스 치료

전북대 정환정 교수팀
근접 광에너지 치료기
감기치료 효과 입증
환자 대상 임상시험 결과
4일 내 88% 개선 효과



정환정 교수 홍용태 교수

특정 파장대의 빛을 입과 코, 인후두부에 직접 조사해 감기 등 바이러스 감염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임상시험을 통해 확인됐다. 이를 통해 바이러스 감염자의 전염력 억제, 치료 기간 단축 등 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정환정(핵의학교실)·홍용태(이비인후과학교실) 교수팀은 올해 3월부터 감기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입과 코, 인후두부에 특정 파장대의 빛을 쏘여 감기 증상개선 효과를 탐색하는 임상시험을 진행해 효과를 입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 교수팀은 지난해 4월 근접 광에너지 집적(集積) 조사기술을 이용한 근접광 치료기인 '바이 바이(Bye-Vi)'를 개발, 이 기기의 바이러스 억제 효능 확인을 위해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감기환자들을 대상으로 증상개선 효과를 확인하는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임상시험은 전북대학교병원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에서 실시했으며, 바이 바이와 가짜 기기를 환

자에게 하루 3회, 3일 간 조사한 뒤 증상개선 정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가짜 기기로 빛을 쏘인 환자군의 증상 개선효과는 37%에 불과한 반면 바이 바이를 조사한 환자군은 4일만에 88%의 증상이 호전됨을 확인했다. 임상시험을 진행한 홍용태 교수는 "인체에는 무해한 광에너지를 환자의 코와 입에 조사해 감기 등 바이러스 감염증을 치료할 수 있음을 시험을 통해 입증했다"며 "미국에서도 바이바이와 유사한 기술로 코로나 임상적용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 국내에서 조기에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환정 교수는 "코로나19와 겨울 독감의 트윈데믹이 우려되는 시점에 광에너지 집적조사 의료기기인 바이 바이를 넘어 코로나에도 대응할 수 있음을 입증할 계획"이라면서 "변이에 따라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적용해 온 이전의 대응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은 물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바이러스 감염병 대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내달 1일 '학교급식 한우 맛체험'

한우협회 전북지회, 도교육청에 2169kg 상당 지원



전북도교육청은 26일 전국한우협회 전북지회와 공동으로 도내 학생들에게 한우고기를 지원하는 학교급식 한우 맛체험 기증식을 가졌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6일 전국한우협회 전북지회와 공동으로 도내 학생들에게 한우고기를 지원하는 '학교급식 한우 맛체험'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학교급식 한우 맛체험'은 전국한우협회 전북지회에서 한우자조금을 통해 미래 소비자인 청소년들에게 한우 맛을 제대로 알리자며 매년 11월 1일 '대한민국 한우먹는 날'에 실시하고 있다. 이에 전국한우협회 전북지회는 도내 150개 학교 1만5,000여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우고기 2169kg(7,700만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운섭 도지회장은 "2015년부터 한우농가들이 스스로 이웃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대한민국이 한우먹는 날을 제정해 매년 학교급식에 한우고기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런 기회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한우고기의 우수성을 느끼고 수입 쇠고기가 아닌 우리 민족의 한우고기를 꾸준히 소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에게 맛있는 한우고기를 지원해 준 전라북도 한우협회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한우고기 애호층이 늘어나 한우농가와 소비자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고3 수능 모의평가 도내 1만3852명 응시

고3 수능모의평가가 28일 치러졌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10월 수능모의평가에는 도내 88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만3,852명이 응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3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수험생들이 수능 실적감각을 익히고, 학습 준비를 최종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마지막 모의평가인 만큼 실전과 같은 마음으로 평가에 임하고, 특히 개인별 수능 전략을 점검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기회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 성적 결과는 오는 11월 7일부터 안내된다. /정은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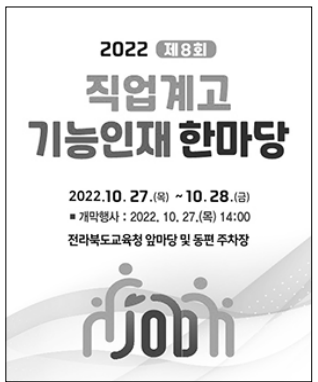
전주대 지역기반경영커플링 사업단 산학협력 간담회 성료

전주대학교 지역기반경영커플링사업단은 최근 산학협력 간담회 및 CEO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17개 기업의 대표와 직원, 사업단 참여교수와 졸업생 등 모두 31명이 참가했다. 참여 기업 대표들의 인사말과 기업 애로사항 청취, 지역 기반 경영커플링사업단의 사업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CEO 아카데미 행사에서는 김창원 교수의 '하드웨어기업의 주요 성장전략', 이기훈 교수의 '일회용품의 이해, 김효진 교수의 '회계와 세금의 이해' 등의 특강이 펼쳐졌다. 이후 만찬과 함께 사업단을 수료하고, 지역 기업에 취업한 졸업생들의 취업 소감 등을 청취했다. 또 각 기업 대표들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한 친목의 시간도 가졌다. 김효진 단장은 "경영대학의 경영학과, 물류무역학과, 회계세무학과가 참여한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단이다"면서 "산학관 커플링사업은 기업·대학·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기반경영커플링사업단은 매년 참여학과와 3학년 진학 예정인 학생을 선발해 2년간 자격증, 인성, 분석 및 문제 발굴, 이에 대한 PCP 수립 등 현업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시간으로 이뤄졌다. /정은성 기자

도내 고교 기능인재들 '한자리에'

오늘부터 이틀간 도교육청 앞마당서 '직업계고 기능인재한마당'

도내 직업계고의 교육활동을 미리 체험하는 기회가 마련됐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7~28일 이틀 간 도교육청 앞마당에서 '2022년 직업계고 기능인재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도내 중학생들이 직업계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안내받고, 전공별 직업을 체험하면서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는 자리다. 이 행사에는 1,000여 명의 중학생과 학부모들이 직업계고 교육활동 체험과 진로상담 등을 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활동 체험 부스에는 도내 30개 직업계고가 직업교육 활동을 홍보하고, 학교기업·창업동아리 제품도



판매한다. 3개 미스터교에서는 로봇, 식품연구, 기계메카니즘 등의 주제

로 특별관을 운영한다. 또한 행사 기간 승마, 공예, 농업, 식품·조리, 상업, 드론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만날 수 있다. 이와 함께 관악·댄스·농악·합창·넌타 등 직업계고 학생들의 재능을 자랑하는 무대도 마련된다. 한편 27일 개막식에서는 전경경진대회(기능경기대회 영농학생 축제, 상업경진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에게 포상금이 수여된다. 이강 미래경제과장은 "이번 기능인재 한마당은 도내 직업계고의 우수성을 알리고, 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에게는 직업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도교육청은 다양한 소통의 장을 통해 직업계고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필리핀서 독립형 태양광발전소 건설 노하우 전수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정상모)는 지난 19~26일 8일 간 재생에너지 발전 분야 대상 글로벌 연수를 실시, 필리핀 소외지역 내 독립형 태양광 발전소 건설 노하우를 전수했다고 밝혔다. 28일 전주비전대에 따르면 글로벌 연수사업은 지난 2020년 한국국제협력단 지원 공적개발원조(ODA)사업에 선

정, 2022년까지 3년간 진행됐다. 올해는 필리핀 과학기술부 소속 산업기술개발원(DOST-ITDI), Carlos Hilado Memorial State University, Romblon State University, Marinduque State College 등의 교수 및 공공기관 소속 전문인력 17명이 참여해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 신재생에너지

지 산업현황 및 정책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등 4개 분야 11개 강의와 6개의 실시간 세미나 및 온라인 토론으로 구성됐다. 특히 필리핀 에너지산업 현황 및 정책, 필리핀 오지 및 섬지역 마을의 전력 이용 현황 등 필리핀 에너지 산업 현안 분석 및 문제 발굴, 이에 대한 PCP 수립 등 현업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시간으로 이뤄졌다. /정은성 기자

수소 내압용기 비파괴검사 기술 개발

전북대 장혜림 대학원생-이은송 대학원생



장혜림 대학원생 이은송 대학원생 김태형 교수

전북대학교 장혜림 대학원생(메카트로닉스공학, 로스알파로스-전북대 한국공학대원 교수·지도 교수 김태형)이 항공우주와 국방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수소 내압용기를 비파괴 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이목을 끌고 있다. 수소 내압용기는 고압의 수소를 저장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가 필수적인데, 이 과정이 어려운 형태로 구성돼 있어 대체로 수압 시험이나 낙하 시험 등 파괴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평가받고 있다.

이때 따르면 장 대학원생은 석사과정 이은송 학생(유연 인쇄전자공학 졸, 한국자동차연구원 재직)과 공동 연구를 통해 수소 내압용기 내 플라즈마 라이너를 투과할 수 있는 테라헤르츠 파를 이용, 구조에서 반사되는 신호를 분석함으로써 내외부 결함을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최근 한국가스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해 연구 우수성을 인정받아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한편 연구진은 이 기술개발로 수소 내압용기가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대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꼼꼼하게'

도교육청, 2584명 대상... 검진기관 11곳에 협조 요청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앞서 도교육청은 '경력 10년 이상' 또는 '55세 이상'으로 제한했던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대상을 '전체 급식종사자'로 확대했다. 한편 폐암 검진 대상은 공·사립학교와 교육기관의 영양교사를 포함해 영양사, 영양실무사, 조리실무사 등 총 2,584명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폐암 건강검진 확대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하고, 검진 결과에 따라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면서 "앞으로 폐암 검진뿐만 아니라 휴식 공간 제공, 조리실 개선 등 급식종사자들의 건강관 확보를 위해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